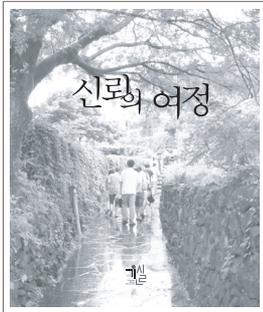


신뢰의 여정

| 기윤실열매소식지 | 2008년 11~12월



2008년 기윤실 열매소식지 “신뢰의 여정”(11~12월)



발간개요 기윤실은 2007년부터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운동(Trust Initiative)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신뢰운동을 전개하면서 어느 조직보다 먼저 기윤실이 신뢰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투명성과 책무성, 공공성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2008년 2월 기윤실과 여러 시민단체가 논의하여 만든 시민단체 사회적 책임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정리하여 '2007년 기윤실 사역보고서 - [신뢰의 열매]'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기윤실은 더 나은 질적인 성장과 도약을 기대하며, 궁극적인 우리의 비전인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보고 내용을 담은 기존의 소식지(격월) 양식을 넘어 기윤실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력파트너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기반하여 사역열매를 정리한 “신뢰의 여정”을 발간하게 된 것입니다.

작성기준 본 사역열매보고서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국제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G3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시민단체인 기윤실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GRI G3 가이드라인		기윤실
프로필		① 열매소식지 소개, 조직구조, 목차, 비전체계도, 비전메시지
보고 원칙 및 지침		② 열매 관점 핵심사업 선정(중요성)과 협력파트너(이해관계자) 소개 / 9대 핵심사업
이해관계자		③ 협력적 관점 회원, 교회, 임원, 연대단체
경제		④ 재무적 관점 회계보고(전 분기와 비교하여 보고), 후원자명, 재정투명화 원칙
환경		⑤ 환경적 관점 내부적 노력, 외부대상(교회, 회원) 캠페인
사회	노동여건 인권부분 사회적부분 제품책임	⑥ 학습과 성장관점 간사역량, 조직역량, 영성개발
기타		⑦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 광고

※ 기윤실만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하는 5개의 관점을 정리했습니다.
①열매관점 ②협력적 관점 ③재무적 관점 ④환경적 관점 ⑤학습과 성장 관점

보고기간 2008년 10월 1일부터 2008년 11월 30일까지의 활동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기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지로 만들었습니다. 표지 종이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앙코르지이며, 본문종이는 고지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여 콩기름으로 인쇄하였습니다. 형광증백제, 염소계 표백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보고서 개요	002
목차	003
비전메시지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 김동호 목사	004
한국교회에 드리는 신신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006
핵심사업소개1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007
핵심사업소개2 2008년 사역열매 신뢰나무	011
핵심사업열매성취율	012
21주년 기념 영성과 윤리 부흥회 "윤리적 삶을 위한 약속 모음"	014
기윤실 비전프로젝트 모임이 진행중입니다.	015
4분기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 수련회 후기 (류형철(울산), 이성숙(대전))	016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017
9~10월 회계보고	018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019
활동보고·활동계획·기도제목	020
행사안내 회심출판기념강연회, 목회자리더스포럼, 기부금 영수증 발급안내	021
창의상상이야기 윤리의 다양한 쓰임새	022
책광고 회심(MVP)	023
환경캠페인 4탄 "이메일로 청구서를 바꿔보세요"	024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전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확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윤실 열매소식지 2008년 11~12월호 통권 213호
 소재지 140-011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217 세대빌딩 401호
 전화 02-794-6200 팩스 02-790-8585
 E-mail cemk@hanmail.net 홈페이지 www.trusti.kr
 발행인 우창록 발행일 2008. 11. 30
 편집인 양세진 편집 조재호 디자인 김문

'섬기는' 사람들

이사 우창록(이사장) 강영안 권장희 김동호 김일수 김충환 김홍섭 박상은 박은조 방진기 백종국 송인수 오정현 이동원 이우근 이의용 이장규 전재준 정예주 정현구 조홍식 주광순 황형택 김사 임성민 황호진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정직신뢰성증진운동본부김병연(본부장) 삶의정치·윤리운동본부김진욱(본부장) 생활신앙 실천운동본부 신동식(본부장) 목회자리더스포럼 황영익(운영위원장) 창의여성리더십위원회 김은혜(위원장) 정 신재용 심정주 정성진 정희경 최정은 기독교윤리연구소 노영상(소장) 강영안 강건구 김병연 박노옥 박준용 손화철 송해룡 신국원 정성진 최태덕 최태연 주태화 디자인경영위원회 이순인(위원장) 이재우 정용태 최철용 사회 복지위원회 김현호(위원장) 권오용(부위원장) 강영실 김동배 김동진 김미혜 김수정 김혜란 두재영 두준기 라광호 박경숙 박정주 백은영 손인용 송시섭 신산철 신정윤 오세란 오창섭 이기영 이만동 이무영 이상근 이영구 이영분 이정희 장동환 조재호 조태래 조홍식 최성재 신뢰받는일터만들기위원회 이용기(위원장) 김인숙 박재우 신학위원회 김영일 김동훈 김승곤 김은혜 김형민 노영상 문시영 민종기 박득훈 송준인 신국원 신기형 신원하 양낙홍 유경동 이상원 이희배 임성빈 정광덕 정원범 정종훈 조용훈 홍순원 황봉환 사무총장 양세진 사무처 인금주(부장) 조재호(부장) 최옥준(간사) 이해정(간사) 임희연(협동) 김문(협동) 김지숙(협동) 윤나래(협동) 한병선(협동) 배태욱(인턴) 협력단체 건강강교회정확학팀네트워크·공의정치실천연대·교회개혁실천연대·교회문화연구소·기독교경영연구원·기독교문화사·기독교공명선거연대·기독교학문연구회·나태만대운동연합·뉴스미션·크리스천라이프센터·놀이미디어교육센터·성서한국·좋은교사운동·직장사역연구소·한국기독교생명윤리학회

기윤실네트워크 담당자 연락처
 광주 조영미 국장 062-222-5382 부산 '김기현 국장 051-462-3558 안동 '권정훈 간사 054-857-7025
 울산 '류형철 간사 052-285-2072 인천 '박병주 목사 018-231-0684 인천 '우준은 간사 032-867-2740
 전주 '김은배 목사 063-644-0492 전주 '김은선 간사 055-753-1484 청주 '이철호 국장 043-274-5852
 대전 '김주홍 처장 042-256-5183 LA '유용석 장로 cem_la@yahoo.com 워싱턴 '강창제 장로 cjkang@cox.net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

김동호(공동대표, 높은뜻송의교회 담임목사)



기독인들에게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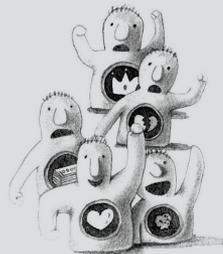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지만 요즘 교회는 선교조차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합니다.

기독교가 배타적이고 사머니즘이 팽배한 한국사회에 뿌리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워낙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연운동과 금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놀랍게도 할머니들이 '나라 빛을 갓자, 민족교육을 시키자, 민족 자본을 육성하여 민족기업을 키우자'라고 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처음에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며, 일제 지배하에서 항일운동하다가 감옥에 간 사람들 중에 개신교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이고 이질적인 종교가 아니라 민족적인 종교로 여겨서 교회가 급성장 할 수 있었습니다.

1984년은 한국 개신교 100주년, 가톨릭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까지는 개신교의 성장이 눈부시고 가톨릭은 미비했었습니다만 그 이후부터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때 기독교는 특정 한 교단에서만 40억원을 모아 연지동에 기독교기념관을 지었고, 가톨릭은 전체적으로 11억을 모아 2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각장애인 개안수술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신교와 가톨릭의 부흥을 엇갈리게 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나라를 사랑하는가? 누가 이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선교가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어야지”라고 하지만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으니 믿는 사람들을 보고 기독교를 믿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자가 쓴 글에 “한국교회는 딱 세마디 ‘모여라 돈내라 집짓자’한다”고 하는데 부끄럽지만 정확한 지적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개신교는 세상에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요? 보여주는 것이 목적자체는 아니지만 보여줄 것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보여라! 이것에 기운



실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줄 착한 행실에 무엇이 있을까요? 기운실이 하는 운동인 정직, 신뢰 운동입니다.

IMF가 우리나라에 강조한 것이 정직과 투명성입니다. 정직은 우리가 국제보상운동처럼 벌여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윤리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사꾼이기 때문에 정직하려 합니다. 지금 시대는 과거와는 달리 정직하게 경영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정직함에 있어서는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가야 합니다. 정직은 이익이 아니라 의를 따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손해가 나고 역울함을 당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보다 뒤쳐져서 선교에 걸림이 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입니다. 일반기업은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데, 사회적 기업은 사람을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파는 것입니다. 높은뜻승의교회가 실제로 사회적 기업 차원에서 탈북자들을 데리고 박스공장을 운영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자립을 지원하는 무담보 소액대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기로 하고 200억원을 모아 교회 건물 짓지 않고, 탈북자를 위한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1만 4천 탈북자를 교회가 먹여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죽자고 기도합니다. 탈북자 돕는데 매달 8천3백만원씩 지원하는데 돕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손해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윤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일예배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강당을 학교에서 비워달라고 합니다. 200억원을 우리가 쓰면 되겠지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말씀이 떠올라 200억원을 교회 건물에 쓰지 않고 교회를 4등분하기로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현재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높은뜻승의교회는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밤낮 건축빛 갯노라 아무일도 못하고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번에 보니까 예배당 없으면 불편하겠지만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도 그렇지 않을까요? 쓸 것 다 쓰면 나눌 것이 없는데 우리 것을 떼어서 나누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지 믿습시다라는 말만 해서 안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실천해서 그 힘으로 실추된 한국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기운실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내용은 지난 11월 17일에 진행된 기운실 21주년 기념 "영성과 윤리 부흥회" 설교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요약! 윤나래 간사)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8년 11월 20일 발표되는 『2008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증진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행된 사업으로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에서 후원한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기운실은 올해를 시작으로 해마다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매년 10월 세계 국가투명성지수를 발표하여 각 나라의 부패정도를 성찰하며 더욱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국가가 되도록 돕는 것과 같은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실시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55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신뢰도는 기존에 막연히 추측하던 것이 엄밀하고 공정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치로 재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결코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교인들 스스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못지않게, 이미 벌써 사회 속에 공공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사회적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갱신을 위해 불편하지만 꼭 감당해야 할 과제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다고 하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너무도 참담하게 나온 현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냉혹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인식과 교회를 향한 절절한 갈망을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점검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더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8년 11월 20일

이사장 우창복

공동대표 김동호 김일수 이장규 주광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2008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김병연 교수 (서울대 경제학부,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1. 여론조사 취지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바른교회아카데미,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과 공동으로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후원으로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글로벌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만 19세 이상 전국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pm 3.1\%$)

본 여론조사의 취지는 사회적으로 큰 비판에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의 대 사회적 신뢰도를 파악함으로써 신뢰도 제고를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여론조사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10월 세계 국가투명성지수를 발표하는 것과 같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연례적으로 조사하여 발표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여론조사 결과

올해 처음 실시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55점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18.4%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48.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신뢰도는 기존에 막연히 추측하던 것이 엄밀하고 공정한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수치로 확인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조사를 주관한 단체 입장에서도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이러한 작업은 결코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교회가 질적으로 더 성숙하고 갱신되어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이 필요할지 제안하고,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3. 여론조사 세부결과

① 한국교회의 신뢰도 5점 만점 2.55점(90점 환산 40.95점)

신뢰한다 18.4%	보통 33.3%	신뢰하지 않는다 48.3%
---------------	-------------	-------------------

(매우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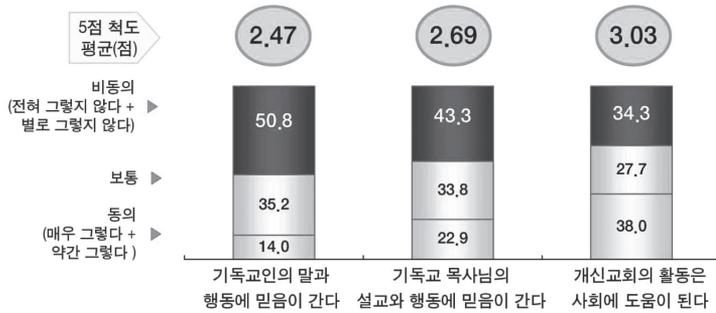
2.55

5점 척도
평균(점)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 중간수준의 신뢰도 보기인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가 3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셈
- 기독교인이 평가한 교회 신뢰 지수(90점 환산)는 67.6점(5점만점 3.88점)이고, 비기독교인들이 평가한 신뢰지수는 35.0점(2.25점)으로 두배 가까이 차이가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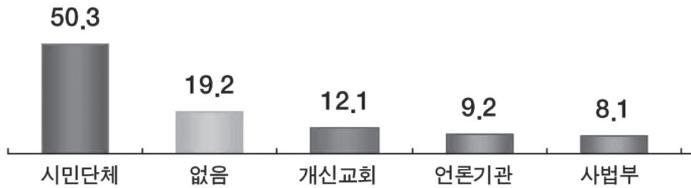
②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교회활동(3.03점) > 목사(2.69점) > 교인(2.47점)



한국 개신교회 구성요소별 신뢰도

· 개신교회의 낮은 신뢰도는 결국 사람의 문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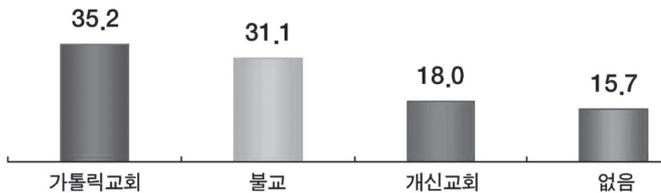
③ 기관에 대한 신뢰도 순위 시민단체(50.3%) > 개신교회(12.1%) > 언론기관(9.2%) > 사법부(8.1%) > 입법부(1.1%)



가장 신뢰하는 기관

· 비기독교인으로만 한정하여 평가할 경우 시민단체>언론기관>사법부>개신교회>입법부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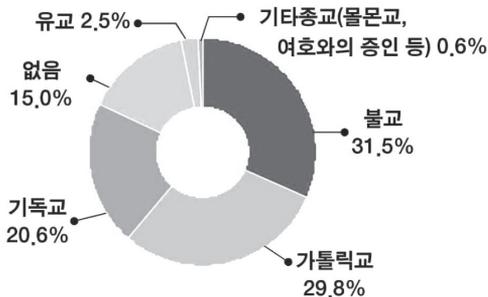
④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위 가톨릭교회(35.2%) > 불교(31.1%) > 개신교회(18.0%)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자들 469명 중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7.6%에 불과함
·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불교를, 30대 이상부터 60대 미만에서는 가톨릭을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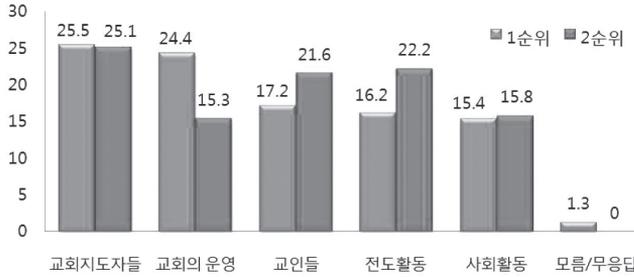
⑤ 주요종교 호감도 순위 불교(31.5%) > 가톨릭교(29.8%) > 기독교(20.6%)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

·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있다는 응답자 20.6% 중 14.5%는 기독교인으로, 비기독교인 가운데 기독교에 호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비중은 극히 낮음
· 반면 불교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 과반수가 비불교 신자이며, 가톨릭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 중 3분의 2 이상은 비가톨릭 신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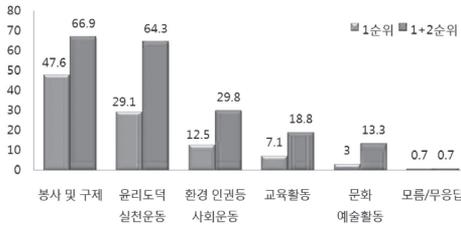
⑥ 무엇이 바뀌어야 하나?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봉사와 구제, 윤리와 도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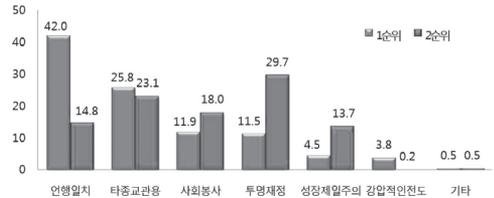
신뢰받기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할 점

- 교회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교인에 대한 신뢰도 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바뀌어야 할 점으로 교회 지도자들이 꼽힌 것은 사회가 교회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일반 교인들에게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음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활동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



⑦ 신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관심있음 24.8%	보통 24.8%	관심없음 50.4%
---------------	-------------	---------------

(매우 신뢰한다 + 약간 신뢰한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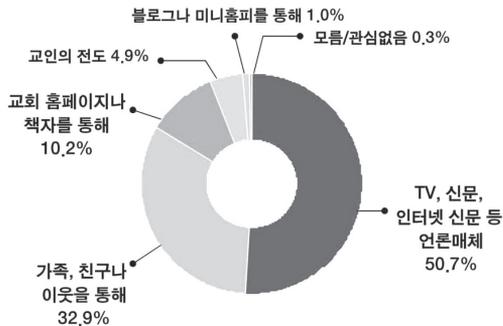
2.55

5점 척도 평균(점)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 개신교회의 활동에 관심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지수(90점환산 점수)는 33.1점에 불과한 반면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지수는 59.8점으로 나타남
- 교회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신뢰지수는 38.2점에 불과하고,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 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신뢰지수는 45.1점으로 나타남
- 이는 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회 자체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뿐 아니라 사회와 이웃과의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시사함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의 출처



⑧ 신뢰지수를 결정짓는 요소

- 나이가 많을수록, 개신교인일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신앙심이 깊을수록 개신교회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독교인의 여부가 5점 만점에 1.39점의 신뢰도 차이를 가져옴
- 개신교회의 관심의 차이가 0.55점의 신뢰도 차이를 가져옴



4. 결론 및 맺음말

한국 교회의 사회신뢰도 여론조사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국 교회가 더 큰 위기에 처해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교회는 불신 받고 있으며, 고립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소통의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본 조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더 신뢰받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힘들어 질 것이다. 아니 종교에 대한 탄압이 없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당연한 결과이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비기독교인들로부터 신뢰를 거의 잃어버렸다는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과 교인들을 포함하여 기독교인들의 삶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면에서의 돌이킴이 없이는 더 신뢰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다원주의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야 하고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 교회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정직하나 효과적으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봉사와 사회기여의 현황이 잘 소개된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신뢰지수의 차이 중 3분의 1가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회귀분석 결과도 교회와 사회의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국 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조사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만약 개별 교회가 교인의 수를 늘이는 방편으로 교인들을 교회 활동에만 몰입하고 사회와는 담을 쌓게 만든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교회마저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는 기독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를 섬기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나눔과 배려, 정직과 신뢰를 가르치고 훈련받게 하여 세상에 본과 소망이 되도록 해야 한다. 교회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사회가 바라는 활동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봉사과 구제, 윤리와 도덕 운동을 사회가 교회에 더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퇴락한 여러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일반인들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젊을수록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낮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개교회주의적 성장방식의 더 큰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 기독교인의 삶과 교회 운영의 일대 방향 전환이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더욱 어둡다는 것을 본 여론조사 결과는 암시하고 있다.



이숙중 교수(성균관대 행정학과) 근대적 합리주의의 정신이 접목된 개신교에 대한 도덕적 잣대는 여는 전통적 종교보다 높다. 개신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려면 최우선적으로 교회 지도자의 높은 도덕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아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문식 목사(산울교회) 세상에 대한 겸손, 포용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려는 열린 자세가 결여된 기독교는 일방적 기독교요, 무례한 기독교라는 나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기독교가 세상과의 소통에서 실패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다. 소통에서의 실패는 바로 선교의 실패로 귀결된다. 오늘의 상황은 예수님의 성육신적 의사소통을 한국교회가 다시 깊이 되새겨져야 하는 상황이다.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한국 교회가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신앙적인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윤리적 타일성과 전문성,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신뢰회복의 주요 기준이자 요소들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이제부터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교회나 신자들이 무슨 일을 할 때 기독교 전반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목회자 한 사람, 한 교회 일이 전체 기독교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를 위해 목회자들은 윤리목회를 해야 한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감동목회를 해야 한다.

2008기윤실사역열매 신뢰나무



2008기윤실사역은
 하나님은혜와후원교회
 회원님의기도와격려를
 통해이루어졌습니다감사합니다



2008년 1~11월 기윤실 9대 핵심사업 열매 성취율

운동영역	사업명	담당
사회신뢰 회복운동	1. 입시·사교육 바로세우기 기독교운동(입사기운동)	방선기 목사 임희연 간사
	2. 기독교와 삶의정치 컨퍼런스	김선욱 교수 최욱준 간사
	3.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김은혜 교수 윤나래 간사
교회신뢰 회복운동	4. 신뢰회복캠페인	정책기획팀 조제호, 최욱준, 임희연
	4-1. 한국교회신뢰지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4-2. 교회저작권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5. 교회재정투명화운동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조제호 팀장, 최욱준 간사
	6. 목회자리더십포럼	황영익 목사 조제호 팀장
회원 실천운동	7. 정직한 성도·신뢰받는 교회 30일 교재 발간 및 목상나눔 모임	신동식 목사 최욱준 간사
	8. 기윤실 목요 포럼 “저자와의 만남”	노영상 교수 / 임희연 간사
협력운동	9. 지구촌빈곤퇴치를 위한 나눔운동	양세진 사무총장 임희연 간사

* 100이 되면 핵심사업에 대한 열매를 성취한 것으로 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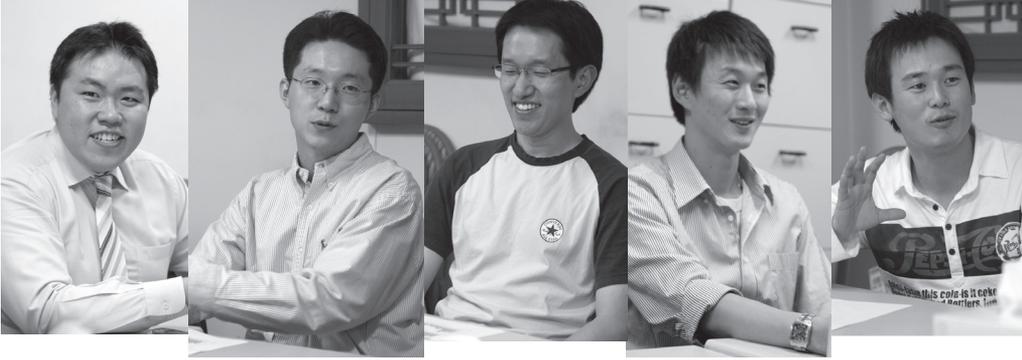
세부사업명	0	50	100	사업종결
연대단체 출범			6월 24일 출범	종결
입사기 모델 찾기				종결
방선기와 함께하는 입사기 회원간담회/강연회		2회 진행		종결
정치적제자도 세미나			4월세미나 개최(민중기)	종결
정치적제자도 설교집			설교집 발간	종결
기독교와 정치실천 컨퍼런스		* 내년 사업으로 연기함		
기독교와 여성 소그룹 성경공부			4기 진행중	
창의여성리더십아카데미			2기 수강	종결
창의여성 대화모임(월1회) 1강 시작			5회	
교회캠페인			9교회 방문	종결
Wow 교회 UCC 공모전			4편 응모	종결
신뢰회복운동 미디어 홍보				종결
1+1=희망 회원배가운동		10%		종결
한국교회신뢰지표 설문측정			14교회 진행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여론조사 후 결과발표, 향후 대안운동 모색중	종결
임파워먼트 매뉴얼 발간			원고 의뢰 중	
공개SW 활용매뉴얼			매뉴얼 보급중	종결
교회용 SW 라이선스 정책유도			MS와 한컴 교회용 라이선스 정책발표	종결
저작권 개정 입법운동			공론화 과정 * 내년 사업으로 연기함	종결
교회재정운영규정 공청회 및 가이드북 발간			공청회 피드백 후 출판준비중	
목회자 납세 지원운동			전국 순회 설명회 및 사이트 운영 중 www.cfnet.kr	
목회자리더십포럼 개최(3회)			2차 포럼 홍보중(12/15)	
신뢰받는 목회자를위한 7H 리더십 워크숍(2회)			1차 워크숍	종결
목회자윤리강령 제정			* 내년 사업으로 연기함	
30일의 신뢰여정 교재 출판			출판준비중	
핵심가치 목상모임(권역별)			2기 진행 섭외 중	종결
매월 목요포럼 개최			8차 진행	
화이트밴드 캠페인			후원교회에 동참유도	종결
회원나눔운동 전개			* 시도하지 못함	

기윤실 21주년 기념 영성과 윤리 부흥회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

윤리적 삶을 위한 약속

- ☐ 연구비를 정직하게 사용합니다.
- ☐ 모든 사람과 다 화목하길 노력하겠습니다.
- ☐ 주님과와의 합일의 삶. 기윤실을 통한 자신 견제.
- ☐ 직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 하지 않기
- ☐ 이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불이익과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데 크리스천임을 인하여 다투지 않고 평화로운 선택을 하겠다.
- ☐ 수입에 대한 십일조와 이웃나눔의 몫을 바로바로 구별하여 철저하게 지키기.
- ☐ 이익을 생각지 않고 의를 생각하는 영업. 더 좋은 재료로 환자들을 섬기기.
- ☐ 저는 올 연말까지 저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짜증내지 않고 친절하게 대하겠습니다.
- ☐ 결연아동 1명 더 맺겠습니다.
- ☐ 자식들한테 매일 한번 이상 사랑한다는 칭찬을 한다.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노력한다.
- ☐ 40일 작정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끝나고 계속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 ☐ 아내와 자녀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진실하게 대하며 시간을 내어 사정을 들어주고 요구를 1개 이상 들어준다.
- ☐ 외롭고 아파하는 열분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좋은 것을 나누겠습니다.
- ☐ 이제부터는 내가 가진 조그만 것부터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 ☐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카페 활동, 바둑 및 오락)을 과감히 이별하겠습니다.
- ☐ 12시 이후로는 TV도, 인터넷도 개인적 유희나 쾌락이나 오락을 위해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 악보 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불법복제하지 않겠습니다.
- ☐ 나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믿음의 기업에 취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 ☐ 업무일지에 사실 그대로를 작성하겠습니다.(실제 했던 것만 쓰기)
- ☐ 모든 사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사랑하리라.
- ☐ 매 주(최소 격주)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현금 100,000원 이상 모아서 아들의 결정대로 사용하겠다.

본 글은 지난 11월 17일(월) 평동 청어람에서 진행된 영성과 윤리 부흥회에 참여한 분들의 고백을 정리한 것입니다.



기윤실 비전프로젝트 모임이 진행중입니다.

양세진 사무총장

기윤실은 그동안 기윤실 운동의 미래, 기윤실 운동의 비전을 말해왔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운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운동의 미래와 비전을 말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단순히 새로운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것을 넘어서 10년, 20년 후에도 지속가능한 운동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부족했다는 반성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청년, 특히 대학생 세대에 주목하여 기윤실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사회의 미래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에 기윤실이 집중해야 한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기윤실은 지난 9월부터 운동본부장과 외부 전문가로 “기윤실 비전프로젝트 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실제 20대 청년대학생들과의 Focus Group Interview(FGI)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진행될 본 프로젝트 그룹은 20대 대학생과 청년들이 매력을 갖고 신나게 참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의 방향과 내용을 고민해가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향후 20대 대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을 중요하게 감당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담 간사를 세울 계획입니다. 회원여러분의 큰 관심과 기도의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20대 FGI 모임일지

- ☞ 1차 모임 : 10월 17일(금) 대학로 식당 / 성균관대 기독교학생
- ☞ 2차 모임 : 10월 18일(토) 안암동 식당 / 고려대 기독교학생
- ☞ 3차 모임 : 10월 20일(월) 기윤실 사무실 / 기윤실 20대 회원
- ☞ 4차 모임 : 11월 19일(수) 중계동 식당 / 천호동교회 청년
- ☞ 5차 모임 : 11월 21일(수) 포항 한동대 / 한동대 기독교학생

20대 FGI 주요 논의내용

1. 취업과 진학에 대한 고민
2. 기독교인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살아서 먹고 살 수는 있는지
3. 캠퍼스의 MT문화에 대한 고민(자나치게 세속화 되어서 참여하기가 부담스럽다)
4. 학교 공부와 교회봉사 혹은 선교단체 봉사와의 긴장
5. 교회에서 듣는 설교내용이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한계가 있는 문제 등



하나님 나라의 정의 세미나: 평등을 중심으로

전국의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들은 분기에 한번씩 모여 앞으로의 기윤실 운동을 전망하며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7일까지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성플라자에서 2008년 4분기 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전국 8개 기윤실 네트워크의 실무자 17명이 참여하여 “하나님 나

라의 정의 세미나 : 평등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스터디 및 각 지역의 사업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간단한 모임 후기를 올립니다.

후기 01 - 울산기윤실 류형철 간사

“존 롤즈, 아마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로날드 드워킨, 그리고 양세진(?)”

이들이 누군지 아는가? 헐리웃 신인 영화배우? 인도 오지 선교의 거장들? 아님 잘나가는 외국계 커피숍 체인 이름? 모두 아니다. 이들은 바로 기윤실 간사들에게는 악명높은 공공의 적(?)이다. 늘 서울기윤실에서 주관하는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 수련회에 올 때마다 마음의 큰 부담이 있다. 그것은 발제와 토론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정이 너무 뻑뻑하기 때문이다.

저녁식사 후 시작된 유해신 목사님의 ‘하나님나라 운동과 기윤실 간사의 사명’이라는 은혜로운 주제 특강 후 정말 잘 준비된 최옥준 간사의 ‘웹2.0시대의 기윤실 운동의 비전과 전략’ 발제는 기윤실 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었다.

자리를 옮겨가며 진행된 기윤실 현안에 대한 전체 토론회는 새벽 3시가 넘도록 진행되었을 만큼 열띤 토론의 장이었는데 기윤실 네트워크의 협력과 연대를 위한 소중한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날이 밝자마자 존 롤즈로부터 시작된 발제와 토론의 시간은 무섭고(?) 두렵고(?) 어려웠지만 공동 토의와 활발한 의견 개진을 통해 점점 친숙한 이미지로 바뀌었고 기윤실 운동에 적용해야 할 요긴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새롭게 기윤실 네트워크에 합류한 부산기윤실의 김기현 목사님과 진주기윤실의 김은선 간사님의 환영만찬을 겸한 점심식사, 또 저녁시간에 함께 관람한 '태양의 서커스' 이 모든 것이 전국기윤실이 함께 하는 자리였기에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운 자리였다.

후기 02 - 대전기윤실 이성숙 부장

이번 기윤실 네트워크 4분기 실무자 수련회에서는 다른 때 보다 더 접해 보기 힘들었던 사람들의 이론을 공부하게 되었던 거 같다. 그래서 그동안 잘 접해보지 못했던 주제들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전에 인터넷을 검색해보고, 책 제목 등 공부할 자료들을 찾아서 나름대로 준비해 본 발전적 부담감(?)이 있었던 수련회였다.

4분기 실무자 수련회에서 주제로 다룬 평등에 대하여 존 롤즈, 아마티아 센, 마사 누스바움, 로날드 드워킨에 대한 논문들의 담당자들의 발제와 토론을 할때는 내용이 조금 어려워 힘들었지만, 실질적인 기윤실 운동에 접목하여 토론할 때는 기윤실에 대한 고민과 미래의 기윤실 운동의 비전과 전략도 같이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 수련회는 공식적으로 집안과 사무실에서 벗어나는 일이고, 전국에서 일하는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직접 만나서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공유하면서 대전기윤실에 대한 사업 아이템도 얻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여러 가지 여건상 진행시키지 못한 일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다시 재충전하는 시간, 자신감을 얻는 기회가 되었다.



역량강화교육

- 10·7(화) 다음세대재단 블로그 특강 참석 최옥준
- 10·8(수) 14:00_희망제작소 사회창안대회 참석 조제호
- 10·10(금)~11(토)_시민교육비전 워크숍 참석(봉도수련원) 최옥준
- 10·13(월) 10:00_월로크릭의 "발견" 독서나눔 간사모두
- 10·16(목) 19:00_7차 기윤실 목요포럼 : 황은우 목사 간사모두
- 10·23(목) 14:00_지속가능경영 세미나 참석(코엑스) 조제호
- 10·27(월) 10:00_기윤실 온라인운동 토론 나눔 간사모두
- 10·28(화)~30(목)_아시아 사회적기업 활동가 대회 참석(올림픽파크텔) 양세진
- 11·6(목)~7(금)_4분기 기윤실 네트워크 실무자수련회 간사모두
- 11·7(금) 20:00_태양의 서커스 "알레그리아" 공연 관람 간사모두
- 11·17(월) 10:00_기윤실 온라인운동 2차 토론 나눔 간사모두
- 11·20(목) 19:00_8차 기윤실 목요포럼 : 주승중 교수 간사모두
- 11·24(월) 10:00_하워드 가드너의 "미래 마인드" 독서나눔 간사모두
- 11·26(수) 13:00_비영리기관과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참석 조제호

협력을 통한 변화

- 10·7(화) 18:30_비영리단체 인터넷 개발 회의(한빛누리재단) 조제호
- 10·8(수) 10: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옥준
- 10·10(금) 10:00_기독시민운동 비전프로젝트 회의(성서한국) 양세진

2008.10. 1~11.30 역량강화교육 및 협력을 통한 변화 일정 보고

본 코너는 학습과 성장을 위해 간사 개인뿐 아니라 기윤실이 조직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 10·14(화) 16:00_비영리단체 인터넷 개발 회의 조제호
- 10·17(금) 12:30_2009년 성서한국 TFT 회의 조제호
- 10·22(수) 06:30_사랑의교회 정감운동 모임참석 (남형두 저작권 강의) 조제호
- 10·24(금) 18:00_건강한교회재정확립네트워크 회의 최옥준
- 10·24(금) 14:00_헌금 연구 프로젝트 보고회 참석 최옥준
- 10·30(목) 18:00_비영리단체 인터넷 개발 회의 조제호
- 10·30(목) 19:00_대전 기윤실 목회자 납세 세미나 참석 최옥준
- 11·4(화) 15:00_청주기윤실 교회신평회복 대토론회 참석 조제호
- 11·6(목) 13:00_2009년 교회후원요청 발송작업
- 11·11(화) 16:00_서울여대 학생들 사무실 방문 (기윤실 운동 소개) 양세진
- 11·12(수) 08:00_부교역자 처우에 대한 전략 회의
- 11·27(목) 14:00_교회와 비영리단체 감사를 위한 세미나 최옥준
- 11·28(금) 19:00_기독시민운동 비전프로젝트 회의 양세진
- 11·29(토) 13:30_책임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 심포지엄 양세진, 조제호



재무적
관점 #

2 0 0 8 회 계 보 고

09~10

기간'2008년 09월 01일 부터 2008년 10월 31일 까지

수입			지출		
계정과목	2008년 7월~8월	2008년 9월~10월	계정과목	2008년 7월~8월	2008년 9월~10월
I. 사업수익	48,743,000	45,255,000	I. 사업비용	50,025,039	42,567,826
① 회비	24,828,000	25,855,000	① 인건비	10,403,328	10,102,185
㉠회원회비	19,061,000	18,774,000	② 사무관리비	12,516,049	6,725,221
㉡이사회비	3,230,000	3,370,000	③ 사업비	27,105,662	25,740,420
㉢지역회비	2,537,000	3,711,000	㉠사업인건비	14,745,000	12,237,500
② 일반후원금	23,315,000	18,920,000	㉡사업행사비	1,936,492	1,605,750
㉠교회,기관후원금	23,290,000	18,870,000	㉢홍보사업비	3,867,670	3,771,640
㉡간사후원금	25,000	50,000	㉣교육훈련비	24,000	57,900
③ 특정후원금	600,000	480,000	㉤지역사업비	3,532,500	4,567,630
④ 사업수입	-	-	㉥발전기금	3,000,000	3,500,000
II. 사업외수익	102,063	104,853	II. 사업외비용	-	-
수입계	48,845,063	45,359,853	지출계	50,025,039	42,567,826
당기감소액	1,179,976		당기증가액		2,792,027
총계	50,025,039	45,359,853	총계	50,025,039	45,359,853

1. 자세한 월별 운영성과표는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언제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기운실은 재정에 있어서 더 높은 투명성을 건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5대 기준을 통해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① 모든 후원금은 은행계좌를 통해서만 받습니다.
 - ② 매달 수입내역과 지출내역을 소식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③ 연 1회 이상 외부 공인회계 감사를 받고, 이를 언제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 ④ 정부나 기업으로부터는 단체운영이나 인건비 명목의 후원은 받지 않습니다.
- 단, 단체의 사명 실행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사업비 명목의 후원은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허위로 하거나, 차명으로 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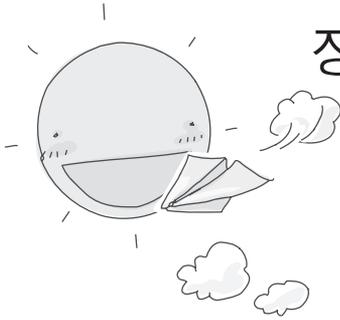
기운실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037-01-0504-979 | 우리은행 821-05-002520 | 농협 074-01-121183 | 우체국 012401-01-001137 | 기업은행 070-013538-01-022 제일은행 377-10-025628 | 신한은행 326-05-010678 | 하나은행 109-228746-00104 | 외환은행 144-13-05572-6 | 씨티은행 136-50810-258

간사 후원구좌 (예금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국민은행 812-01-0115-671 | 지로번호 7530353



신규회원 명단입니다. 감사합니다. | 2008년 9월 1일~10월 31일

- 9월 | 정왕호(DP0800151) 노광삼(DP0800153)
- 10월 | 이강일(DP0800156) 송성현(DP0800157) 남은찬(DP0800180) 김가현(DP0800181)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30일의 여정을 시작해 보세요!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 등 5가지 가치를 중심으로 성경을 묵상하여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과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교회 내에서 진행하기 원하시는 교회는 아래의 연락처로 신청해 주시면
기운실이 직접 찾아 뵙고 전 과정을 진행해 드립니다.



프로그램 구성

주	주 제	강 사 진
1주차	정직과 희망 (정직)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2주차	합당한 삶 (책임)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과) 황영익 목사(서울남교회)
3주차	의를 추구하는 삶 (정의)	김선욱 교수(숭실대 철학과)
4주차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평화)	이상원 교수(총신대 기독교윤리학) 유경동 교수(감신대 신학과)
5주차	작은 자 하나에게 (배려)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6주차	우리 교회 실천 캠페인 만들기 워크숍 (참가자들이 직접 우리 교회의 실천 캠페인을 기획합니다.)	김은혜 교수(숭실대 교양학부) 김호경 교수(서울장로회신학교, 신약학)

* 주제 강의 후 일주일 동안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의 여정’ 묵상교재를 통해 성경을 묵상합니다.

* 강사 및 프로그램 구성은 신청 교회와의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합니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 * 5개의 핵심가치를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깊이 있는 말씀 묵상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특강이 진행됩니다.
- * 묵상 내용의 실제적 적용을 위해 참가자가 직접 실천 캠페인을 기획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최옥준 간사 (070-7019-3759, chamcu@hanmail.net) 



활동보고
활동계획
기도제목 #

활동
보고

- 10/06(월) 교회의 사회적 책임 2.0 심포지엄(장산대)
- 10/12(일) 시흥소망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10/16(목) 7차 기윤실 목요포럼(황은우 목사), 4차 정기
이사회,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 2차 회의
- 10/20(월) 교회학교 부흥에 대한 새로운 접근 세미나
(새문안교회)
- 10/21(화) 주일에는 먼저 교회로 캠페인 시작
- 10/26(일) 세검정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11/04(화) 한국교회 신뢰회복을 위한 대토론회(청주)
- 11/06(목)-07(금) 기윤실 네트워크 전국 실무자
수련회(서울여성플라자)
- 11/13(목)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 3차 회의
- 11/17(월) 기윤실 21주년 '영성과 윤리 부흥회'(청어람)
- 11/20(목)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세미나(청어람), 8차 기윤실 목요포럼(주승훈 교수)
- 11/24(월) 6차 상임집행위원회(울촌)
- 11/29(토)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 12/07(일) 서울영동교회 신뢰지표 설문조사
- 12/09(화) 19:00 짐 월리스의 회심 출판기념강연회
(VF 중앙회관)
- 12/12(금)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단 회의
- 12/15(월) 기독교윤리비전프로젝트그룹 4차 회의
- 12/15(월) 16:00 2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청어람)
- 12/18(목) 19:00 9차 기윤실 목요포럼(양금희 교수)
- 12/29(월) 18:00 2009년 정책워크숍
- 01/05(월)-06(화) 2009년 신년 간사워크숍
- 01/12(월) 18:30 정기이사회
- 02/16(월) 18:00 2009년 회원총회(송실대)

Tip01. 이번호 신뢰의 여정을 보시고, 개선방안 또는 소감, 오타 내용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5분을 추첨하여 "회심/IVP"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2월 19일(금)까지 이메일(cemk@hanmail.net)로 의견과 함께 성함,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Tip02. 1년 동안 최대한 회원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소식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했지만 많이 부족한 가운데 1년이 흘러갔습니다. 2009년 새해에는 좀 더 회원님께 소중하고 유익한 소식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
계획



11/17(월) 기윤실 21주년 '영성과 윤리 부흥회'(청어람)

기윤실과 부흥회, 21년만의 첫 만남! 기윤실이 창립 21주년을 기념하여 처음으로 부흥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부흥회는 "영성과 윤리 부흥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되었는데, 기존의 부흥회와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김영표 목사(지구촌교회)의 찬양인도와 마태복음 5:13-16에 대한 김동호 목사(높은뜻승의교회)의 설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참석자 모두 남은 2008년 동안 최소한 이것만큼은 꼭 실천하겠다는 윤리적 삶에 대한 약속들을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윤실은 앞으로 정기적으로 '영성과 윤리 부흥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담당¹ 최옥준 간사(070-7019-3759, chamcuj@hanmail.net)

11/29(토) 6차 공공신학 세미나(행정학)

올 마지막 공공신학 세미나가 "행정학에서 본 공공성의 문제"라는 주제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이승중 교수를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기윤실의 공공신학 세미나는 공공성을 매개로 철학, 사회학, 행정학 등 학제간 대화와 토론의 장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책자를 통해 발간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공공신학 컨퍼런스를 통해 교회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정립해 나가려고 준비중입니다.

담당¹ 조제호 팀장(jehoc@hanmail.net)

기도
제목

1. 2008년 한해동안 기윤실 사역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한해의 사역을 깊은 성찰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2009년 새해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들을 잘 분별하여 계획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생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기 이전에 한국교회와 성도 우리 모두에게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과 기도가 필요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를 위해 기윤실이 작은 밀알이 되어 한국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짐 윌리스의 “회심” 출판기념강연회

미국 복음주의 사회참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짐 윌리스의 “회심” 출판 기념 강연회를 IVP와 공동으로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 *일시 2008년 12월 9일(화) 오후 7시
- *장소 IVF 중앙회관 지하 “좋은땅”(홍대역 1번출구)
- *강연 배덕만 교수(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교회사),
김선옥 교수(숭실대 철학과)

2차 기윤실 목회자리더십포럼(청어람)



- *주제 한국교회 목회리더십의 윤리적 성찰과 발전을 위한 모색
- *일시 2008년 12월 15일(월) 오후 4시
- *장소 명동 청어람 3실
- *발제 노영상 교수(장신대 기독교윤리학),
최형근 교수(서울신대 선교학)
- *논찬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김현진 목사(사림의교회)

‘On Air 삼각지’ 가 블로그로 운영됩니다.

사무처에서는 웹 2.0시대에 맞춰 회원 여러분과의 쌍방향 소통을 만들어가기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기윤실의 활동 소식을 전하는 ‘On Air 삼각지’를 블로그 (On Air 기윤실)로 전환합니다.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 기윤실의 운동 현장 소식은 물론 활동가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생각, 고민들을 회원 여러분에게 진솔하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들도 블로그를 통해 함께 소통되기를 소망합니다. 블로그에 올라오는 글은 기존의 기윤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On Air 기윤실〉 주소 <http://trusti.tistory.com>
- *문의 최옥준 간사(070-7019-3759, chamcuj@hanmail.net)

2008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입니다.

올 한해 기도와 후원으로 기윤실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08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변경되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① 기부금영수증은 2009년 1월 초에 발송해 드립니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분 급여 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 지급시'로 1개월 연기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 기부금영수증을 적용한 회원님의 연말정산시기는 2009년 2월분 급여 지급시이며, 기윤실에서는 2008년 12월까지의 기부금 내역을 기록한 기부금영수증을 2009년 1월 초에 회원님께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 지난해처럼 연말까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별도 연락주시면 2008년 11월 후원내역까지 기록된 기부금영수증을 발송해 드립니다.(02-794-6200 안금주 부장)

②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를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만 연말정산 증빙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세법개정으로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증빙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난해까지 간혹 후원자 분들 중 기부자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올해부터는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필요 없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합니다.





윤리의 다양한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아요.

조세호 팀장

"해커의 눈으로 중무장하라!"

CEH

Hackers are here. Where are you?

Master the Hacking Technologies | Become a CEH



01. 윤실이는 요즘 본인 이름에 불만이 많습니다. 부모님이 '윤리'와 '실천'을 너무 좋아해서 두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이름을 '윤실'이라고 지어 주셨지만, 정작 윤실이는 자신의 이름이 뜻하는 윤리실천이란 것이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할 건만 같은 답답함과 21세기 최첨단을 걷는 다원화된 사회가운데 너무 구식이란 생각이 들어 몇번이고 이름정정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02. 그러던 어느날 즐겨보던 M본부의 더블류유를 보다가 아프리카 지역에서 '윤리적 여행'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을 다룬 기사를 보게 되었고, '윤리적 여행?', 윤리와 여행이라 하면 뭔가 어울리지 않는 거 같은데.. 윤리라는 표현이 저런 곳에도 쓰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컴에 앉아 윤리라는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03. ①윤리적 여행 현지의 문화를 존중하고, 보존하며, 현지인에게 도움이 되는 여행을 하자는 취지로 시작. 관광수입이 대형 관광업체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아닌, 현지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생각해 보고 여행. 환경적 관점에 중시된 그린여행, 생태관광, 책임여행으로도 불림.



②윤리적 패션(쇼)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모피 반대론자들에게 의해 주목받기 시작. 환경을 생각하여 유기재료(면,실크,대나무,삼 등)로만 만든 옷을 가지고 패션쇼를 하거나, 저개발국에서 낮은 임금을 바탕으로 생산된 옷을 입지 않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함.

③윤리투자(펀드) 보통은 투자에 있어 수익률과 리스크 둘 만을 고려하지만, 투자의 결과가 자신뿐 아니라 이웃과 사회에 도움이 될지 생각하며 투자하는 것. 즉, 사회적책임을 잘 감당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2006년 미국 통계에 따르면 약 10%가 윤리펀드로 알려져 있음.

④윤리적 리더 육성 프로그램(Ethical Leaders Rearing Program, ELP) 윤리의식을 기본으로 한 생명과 인간을 존중하는 인성교육과 다양한 문제 해결능력을 갖춘 전문지식인 양성과정으로 구성된 가톨릭대학교의 교육특성화 과정. 이수 시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됨.

⑤윤리적 해커 자격증(Certified Ethical Hacker, CEH) 최근 해킹침해 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지면서,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자신이 속한 조직과 단체를 관리하는 보안전문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자격증. 공식 인증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전세계적으로 2만여명의 윤리적해커가 활동.

⑥ 기타 윤리적 소비(착한소비), 윤리아카데미, 도덕지수, 윤리기업 랭킹 등등

04. 검색을 하다 보니 끝이 없이 다양한 영역에서 '윤리'가 긍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안 윤실이는 본인의 이름에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IVP 모던 클래식스 009: 제자도·사회참여

회심

짐 월리스 지음 | 정모세 옮김 | 배덕만 해설
신국 변형 288면 | 양장 13,000원·무선 11,000원



잠든 신앙, 깨어 행하게 하라!

짐 월리스는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날의 문화와 정치를 비판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전환하고, 당면한 사회적·정치적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을 가리키는 이야기들로 영감을 불어넣는다. *2005년 개정증보판

“예언자적인 동시에 목회적이고, 거센 동시에 상냥하다. 우리 시대의 필독서다.” -리처드 포스터, 『영적 훈련과 성장』 저자

“회심에 관해 내가 읽은 책 중 가장 감동적이고 도전적인 초창!”

-헨리 나우웬, 『세상의 길 그리스도의 길』 저자

■ 김민응(성공회대 교수), 이문식(산울교회 담임목사) 추천

Ivp www.ivp.co.kr
www.ivpbooks.co.kr



이메일로 청구서를 바꿔보세요

언제부터인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편지들이 가득해 할 우편함에 반갑지 않은 '각종 청구서, 교통범칙금, 광고 편지' 등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서울 종로구 통계에 따르면 현재 하루 20만~25만 통의 우편물 중 육필 편지는 1%도 안되고, 나머지 우편들을 각종 청구서 및 광고물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가운 소식을 전해주는 육필편지로 우편함이 채워지는 것은 소중하지만, 덩그러니 현관 앞에 차지한 우편함이 반갑지 않은 각종 청구서들로 채워지는 것은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월말이나, 분기말, 연말이면 무차별적으로 날아오는 각종 청구서들은 기분 좋은 소식으로 가득해야 할 우편함을 웬지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한 통의 종이 청구서를 이메일 청구서로 바꾸면 제작비와 우편비 등을 포함해 약 400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이 청구서를 받는 가입자는 약 1억 4천만명, 한 달 동안 사용되는 종이는 무려 3억 7천만 장이 나 되죠. 17년 산 나무 한 그루는 평균 9,000장의 종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달에 사용되는 청구서는 약 40000그루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입니다. 나무가 30그루만 있어도 평균 2인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배출하는 CO₂량을 흡수할 수 있는데,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청구서를 받고 자동납부 처리한다면 종이를 아껴 CO₂ 흡수원인 산림을 보호할 뿐 아니라 95%의 비용을 아낄 수도 있습니다. (출처 : 녹색연합 녹색생활백서 중)

특히 이메일 청구서 신청을 일일이 할 필요 없이 포털 메일(한메일, 네이버메일, 파란메일 등)의 경우 대부분 청구서함 서비스를 통해 기업 사이트에 개별 방문하지 않고도 한번에 청구서를 신청,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외에도 은행에서도 각종 공공요금의 자동이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별도 청구서를 받지 않고 요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종이와 우편물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실제적 제한 🙅! 지금 정기적으로 받고 있는 종이청구서가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카드, 핸드폰, 인터넷, 유선통신, 전기, 가스, 수도요금, 아파트관리비, 등록금, 세금 등등)

🙅! 이메일 사용이 어렵지 않은 분들은 그 중에 꼭 종이로 받아야 할 것이 아니라면 이메일 청구서로 변경해보세요.(이메일 청구서로 변경시

요금할인혜택을 주는 곳이 많습니다)

🙅! '자동이체를 하고 있어 신경쓰지 않았던 요금 중에 청구서가 우편으로도 발행되어 이전 주소지로 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세요.(우리 집으로 오는 전 집주인의 청구서가 있다면 꼭 반송해 주세요)

- 환경캠페인 1탄 _ 종이컵은 사양합니다
- 환경캠페인 2탄 _ 재생복사용지를 사용합니다
- 환경캠페인 3탄 _ "STOP CO2 캠페인"



일러스트 | 엄정애 (출처: 녹색연합)